

과하였으며, 업종도 식품 등 소비재 가공공장이 대부분이었다.²²⁾

그후 울산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공업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건설부에 울산특별건설국이 설치되었다. 도시의 등급도 읍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이에 힘입어 농, 어업이 주였던 울산은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비철금속 등 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의 임해 중화학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울산의 도시 공간구조도 구울산읍과 병영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신정, 아음동의 신시가지, 장생포와 석유화학단지의 공업지대, 기계장치산업의 중심지인 염포, 방어진지구로 변화되어 갔다.²³⁾ 이 사이 울산의 인구도 급증하여 1990년에 69만명에 도달하였다.²⁴⁾ 공업도시 울산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자각도 높아갔고, 노동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계열사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의 발전이 울산 주민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기업이 공해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해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갔고, 급기야는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과 농업과 수산업의 황폐화라는 사태를 야기시켰다.²⁵⁾

이러한 모든 문제와 함께 금년 들어 인구 100만의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울산공업 30년사』, 263쪽.
23) 『울산공업 30년사』, 119쪽.
24) 『울산공업 30년사』, 103쪽.
2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6 공해로 찢겨나는 주민들 - 울산, 괴질로 신음하는 주민들 - 온산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51-85쪽, 같은 책, 86-119쪽.

울산 도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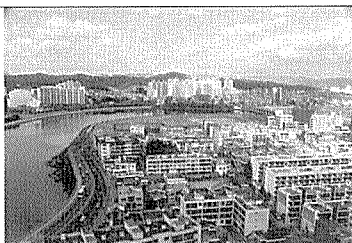
Investigating the City

한삼건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by Han Sam-Gun

울산의 중심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 강은 말하자면 울산의 젖줄이다. 이 강의 전체길이는 약 41.5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 길이에 비하여 수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70년대 이전, 즉 울산공업단지의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의 태화강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지금은 사라진 모래섬을 경계로 앞강과 뒷강이 나뉘고 그곳에는 은어며 황어, 모치 등이 강물만큼이나 많았다. 맑은 강에는 강조개가 널려 있었고 강가에 늘어진 포플러 숲과 길고 푸른 강둑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었다.

이 태화강에는 용금소 혹은 황룡연이라 불리는 깊은 소가 있다. 태화강 북쪽의 구시가지와 남쪽의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주동맥인 태화교 바로 상류가 이 황룡연이다. 황룡연이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위에는 과거 어느 때인가 태화루라는 큰 누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이곳을 찾았던 시인 묵객의 시문이 읊지 등에 전한다. 말하자면 이곳이 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승지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조선시대 어느 때부터 울산도호부의 사직단이 위치해 있기도 했다. 이처럼 수 백년간 나라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소였던 이 곳도 일제시대에 대지가 민간에 불하되고 현재는 국적불명의 건물이 예식장 간판을 달고서 있다. 높은 대 아래에는 청수도 흐르지 않으니 누각도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태화강이 생활하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70년대의 어느 날 우리는 태화강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법석을 피운 적이 있었다. 그



현재의 울산 시가지: 태화강과 멀리 고층아파트들이 보인다.



위험받고 있는 태화강변 대나무 숲과 멀리 보이는 고층아파트



울산도호부 동헌의 주거물 (사진 한삼건)

래도 그때는 강물에서 먹이라도 감았지만 이젠 물고기 얘기는 아예 사라진지 오래다. 이처럼 오염시켜서는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태화강을 잊고 산다.

강 건너편의 남산도 수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태화루터에서 바라보는 남산은 울산의 조망경관 가운데는 일품이다. 그러나 즐기던 장소가 훼손되어 잊혀져 가듯이 바라보던 명소도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이다. 남산은 은월봉이라 불리는 봉우리를 포함하여 12봉이 있다. 동에서 서로 뻗은 이 산줄기는 그 북쪽이 급경사를 이루어 나란히 흐르는 태화강과 강가의 대밭과 함께 잘 어울린다. 그러나 이곳에도 고층아파트가 벽처럼 서서 산을 태반이나 가리거나 산너머로 빼죽이 고개를 내민 아파트까지 있어 쳐다보기도 싫게 되어 버렸다.

태화강은 강물의 오염과 함께 구 시가지 쪽 하천부지가 시멘트로 포장된 공영주차장이 되고 강 남북의 양 측은 4차선 강변도로가 전구간에 걸쳐 개통되기 일보전이다. 이렇게 되면 강은 그 성격이 단순화되어 그저 주차장이나 도로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두 가지 편리가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기뻐하고 있다.

울산을 이해하는데는 강 다음으로 산을 살펴보면 좋다. 울산에는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해발 1천미터급에 이르는 산줄기가 서쪽의 밀양시, 경주시와 경계를 지워주고 있다.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영취산, 고현산 같은 산이 울산의 담벼락이 되어 있는데 이들로 해서 울산은 인간이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이래 독립된 지형, 독립된 문화, 독립성이 높은 기질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에 의한 병합과 함께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문화와의 접점이 또한 이곳이었기 때문에 자생적인 문화나 그 흔적은 잘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외부 세력과의 투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 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들이 과거에는 울산을 무가급제자가 많은 상무적인 고장이 되게 하였고 일견 거칠어 보이는 지역정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은 현재의 공단문화의 그것과 잘 어울리기도 한다. 울산은 본래 언양현과 울산도호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때 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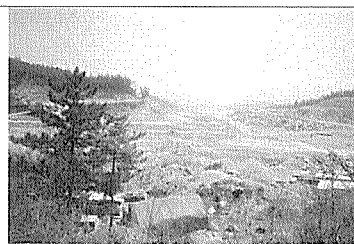
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울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과 울산시로 나뉘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도농통합시로, 다시 작년에는 광역울산시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울산과 언양, 아니 울주군은 별개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에는 울산읍성이 있었고 언양에는 언양읍성이 있었던 것을 보아도 이러한 짐작은 가능하다. 울산도호부의 진산은 시 동쪽에 있는 무룡산이며 언양현의 진산은 고현산이다. 고현산은 높이가 해발 1천미터를 넘지만 울산의 그것은 불과 2백미터 남짓한 함월산이다. 그러나 울산의 주산인 이 산은 그 위에 올라서 보면 그 가치가 짐작이 된다. 산 정상이 아닌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정상에만 서 보아도 사방 백 리 안의 산과 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처럼 이 산은 해발고도나 그 덩치에 비해 대단한 장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함월산은 울산 구시가지의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년전에 이곳을 개발하여 수만평에 이르는 택지가 조성되면서 이 산의 이름은 매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렸고 풍수를 연구하는 이들로부터 일반시민, 유식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산의 개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금은 택지조성은 마무리되고 원래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었음에도 여러 곡절 끝에 상당부분이 아파트건설지역으로 변했다.

본래 이 산은 울산의 주산이면서 시민의 휴식처였다. 이 산 정상부근에 있는 백양사는 그 규모는 작으나 창건시기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절의 새벽종소리는 울산 팔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이 절과 그 주변은 울산 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소풍지로 더욱 유명했다. 산에 오르는 길 좌우에는 언제부터인가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만든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고 매일 새벽이면 아침 운동하는 사람으로 성사를 이룬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완공을 기다리며 내뿜어 있을 뿐 시민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산은 고깔모자를 쓴 아이머리처럼 정상부만 남기고 다 파헤쳐지고 절은 누렇게 드러난 절개지위에 불품없이 서있다.

울산에는 이렇다할 건물이 없다. 아니 건물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노래불러주는 건축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원칙과 건축관련 법규가



태화강변의 공영주차장과 강남 신시가지의 아파트군 (사진 한삼건)



파헤쳐지고 있는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 (사진 한삼건)

만들어낸 무수한 건물은 있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은 잘 보이지 않는다.

흔히 울산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일컬어진다.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이를 증폭시키기도 하겠지만 졸부들의 성공신화와 대형승용차 보유비율 전국 최고인 이 도시에는 새로운 도시문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우선 울산시로 승격되고 특정공업지구로 선포된 1960년대 초반부터 이곳은 '건설'이나 '경제개발'의 구호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가가 모여있던 한적한 어촌과 배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던 농촌마을이 중기의 소음으로 덮이면서 울산은 변해가기 시작했다. 우리 것은 물론이고 방어진이나 장생포, 그리고 울산 시가지에 남아있던 왜식건물들도 일시에 쓸려나가고 조국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식민도시 울산은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만들어져도 시민의 생활이 아닌 원료나 생산품의 수송에 맞춰지고 상수원을 개발해도 공업용수가 우선인 도시에서는 인간이 중심에 서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서 건축가도 건축도 만들어지고 키워질 수는 없었다. 4년제 대학이라고는 울산대 한 곳 뿐이고 전문대학도 울산대 한 곳뿐이면서 인구는 100만을 바라보는 광역시가 울산이다. 사실, 광역시가 된 것도 울산의 공업생산력 때문이다. 즉, 199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광공업 총생산액의 약 11%를 울산이 차지하여 수도서울도 능가하는 실물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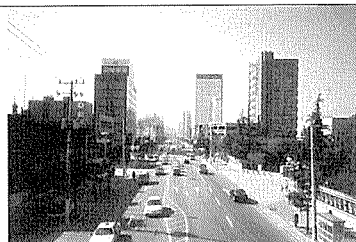
울산의 향후 과제는 이런 공업생산력과 같은 경제적 실력이 참된 울산의 저력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장만 있고 회사가 없는 체제를 탈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도시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이 도시를 위해 쓰여진다면 시민생활의 가시적인 변화도 보여질 것이다. 이러한 저변의 경제구조가 변화할 때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면 비로소 이 도시에도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신 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울산에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려왔던 침통한 건축과 겉 화장이 화려한 건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각급 관청건축으로 대표되고 후자는 시내에 산재한 상업건물들이 주축을 이룬다. 우리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화장으로만 개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건축은 입면구성이나 그 형태의 기발함만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 관청은 구태의연하게도 그 건축형태로 시민을 위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과 고층아파트가 울산 건축의 전부이다. 전통적인 단독주택지에 어느 날 들어선 20층 짜리 고층 아파트는 울산 모순의 상징이다. 법규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용도를 채우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 도시의 미래를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 화려한 도심의 건물도 상업성의 산물일 뿐 인간이 모이고 쉬며 교류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하지는 않는다. 회색공간 아니면 풀 칼라의 색채 홍수 속에서 그나마 눈을 쉴 수 있게 하는 녹색은 구 울산도호부의 관아였던 '동헌' 공원에 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는 긴 시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고목이 아직도 몇 그루 남아 있다. 이처럼 노인과 청소년이 찾는 동헌경내 정도가 울산사람 입을 알게 해주는 장소이다.

울산은 고급스런 공업단지다. 흔히 생각하는 기름때 찌들은 공단과는 다르며, 공장의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과 그 가족이 시민인 이 도시는 여전히 문화의 불모지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경제가 곧 문화를 살찌우지는 않으며 부가가치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울산에서 알게 됐다. 어떤 건축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공무원과 시민과 전문가들의 공동작품이 오늘의 울산 건축이다.

옛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도 못하면서 쓸만한 장소나 공간을 오늘날의 가치로만 파악하여 급기야는 버려놓고 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모순이 극대화 된 땅 - 바로 울산이 아닐까.



울산시청 앞의 가로경관 (사진 한삼건)



울산시청사와 의회동 (사진 한삼건)



주택가로 밀려오는 5일장의 모습 (사진 한삼건)